



머리말

지구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 국가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다른 민족, 국가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보다 나은 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2012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고유한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밝은 지구촌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간에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듯이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 및 민족들 간에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 문화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글로벌 에티켓’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에티켓이란 인종, 민족, 문화, 국가, 지역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전 세계인들이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발전이 세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한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전통, 나아가 생활 속 에티켓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졌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글로벌 에티켓과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생활 예절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와 더불어 어려서부터 실생활에서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글로벌 에티켓 보완 지도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듯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예절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가 세계 각국의 문화나 예절 생활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지만, 동 보완 지도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각 주제에 맞는 다양한 관련 자료를 찾아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완 지도 자료는 초등학교에서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글로벌 에티켓 관련 내용을 지도할 때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시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동 보완 지도 자료를 비교 분석한 후 동 자료를 활용하되, 학생의 필요와 수준, 학교의 실정, 지역 사회의 여건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본 보완 지도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본 자료는 18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1개 주제 당 약 1차시를 배당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 지도 시간은 융통성 있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 지도 순서와 지도 시기,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지도 방법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각 주제는 4쪽 또는 6쪽으로 편집되어 있고, 대체로 지도 계획(목표, 활동 과정, 준비물, 유의점, 관련 교육과정), 활동지, 이야기 자료와 도움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제의 성격에 따라 이야기 자료와 도움 자료 모두 제시된 경우도 있고, 이야기 자료 또는 도움 자료로만 구성되기도 함
3.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동 자료에 포함된 내용에 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다른 자료들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



1.	,	• 5
2.	,	• 9
3.	!	• 13
4.	가 ,	• 17
5.		• 21
6.	,	• 27
7.		• 31
8.		• 37
9.	,	• 41
10.		• 47
11.		• 51
12.		• 57
13.		• 61
14.		• 65
15.		• 71
16.		• 77
17.		• 83
18.	가	• 87
<	>	• 92
<	>	• 94
<	>	• 95

1

목 표

-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인물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다른 나라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찾아 소개할 수 있다.
- 우리가 외국인과 함께하는 생활이 점점 더 확대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 과정

-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동모습을 이야기한다.
-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또는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을 찾아본다.
-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한다.
-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글로벌 에티켓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준비물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활동 모습에 관한 이야기 자료
- 해외 한국인 분포, 주한 외국인 수, 관광객 수에 관한 통계 자료
- 세계지도, 지구본

유의점

- 통계 자료 분석에 치우쳐 실생활과 유리된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한다.

관련 교육과정

4-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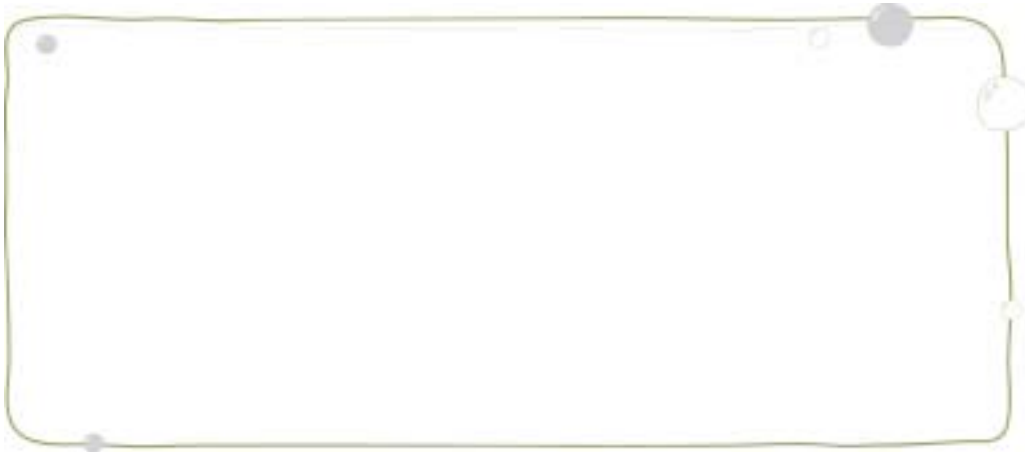
가

, 6-2 2.

가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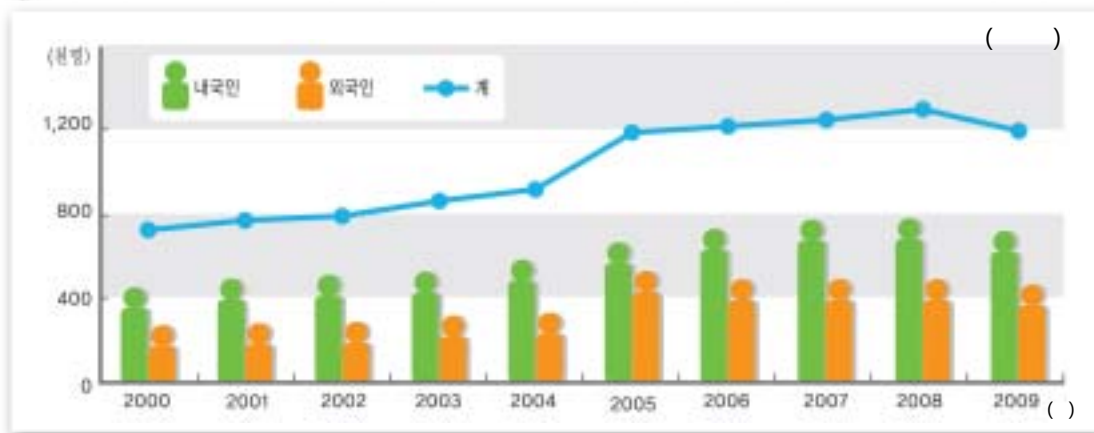
1 가 (,)



2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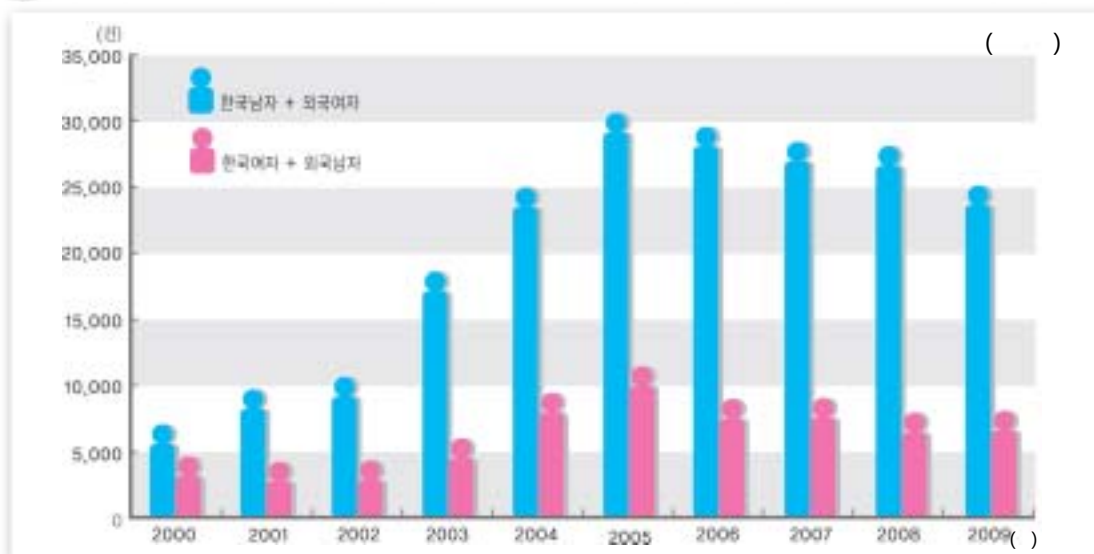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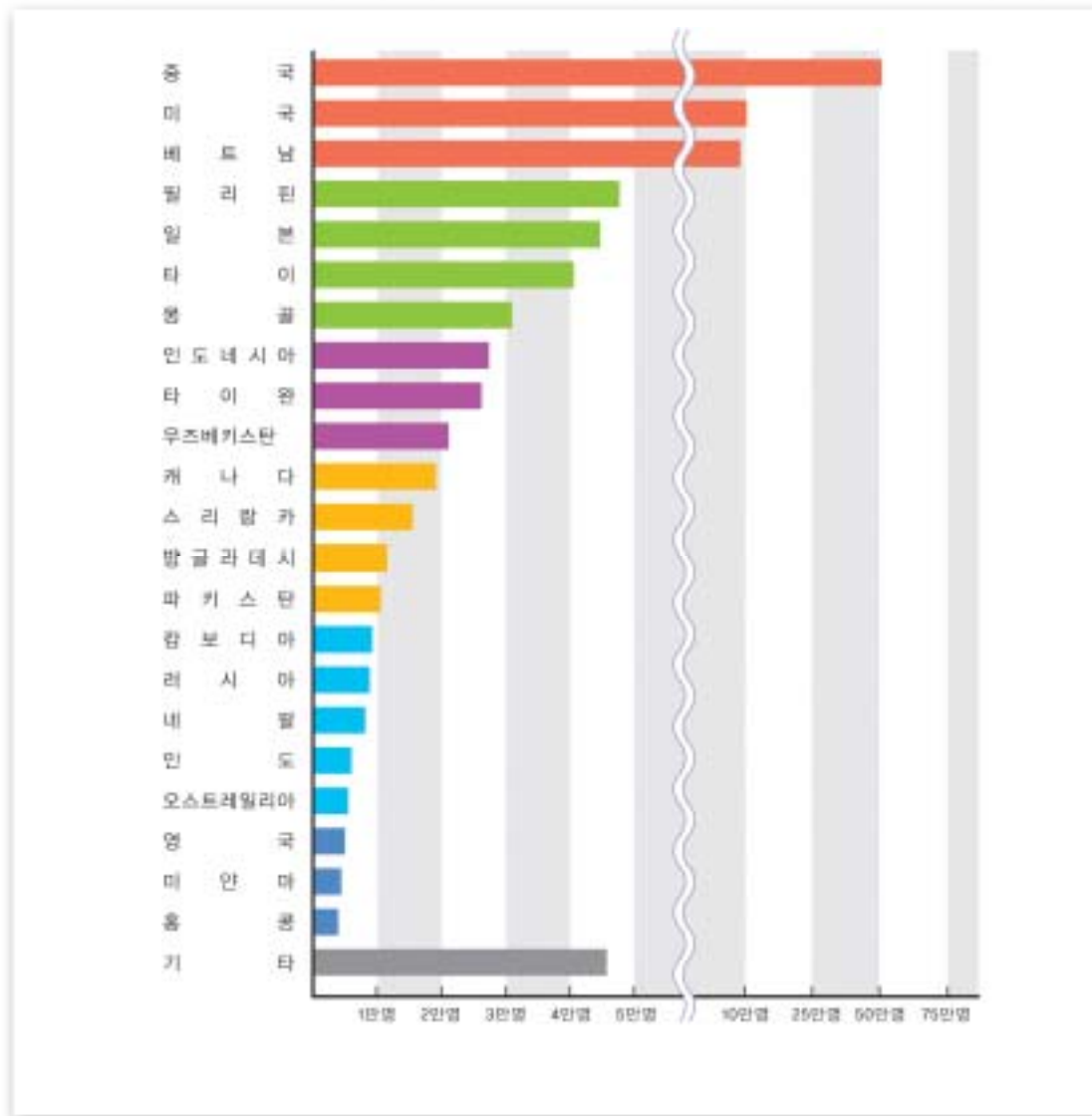
- ★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외국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 다른 나라로 나가는 우리나라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사람의 숫자보다 많다.

외국인과 결혼한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 ★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 외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의 숫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자 숫자보다 많다. 차이가 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보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 : , 2010. 3. >

*

380,396

★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중국,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최근에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되는 외국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2

목 표

- 글로벌 에티켓의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주어진 상황에 맞는 글로벌 에티켓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활동 과정

-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불쾌했던 사례를 찾아 이야기한다.
 - 지켜보기에 난처했던 외국인의 행동 사례
 - 우리 이웃이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난처했던 일
- 글로벌 에티켓을 지켜야 할 이유를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 모듈별로 생활공간을 정하여 바른 행동과 바르지 못한 행동을 브레인스토밍 해 본다.
 - 일상생활에서 - 옷차림에서 - 식사 장면에서
 - 버스나 지하철에서 - 공공시설에서 - 그 밖의 장소에서
- 각 모듈에서 발표한 글로벌 에티켓의 내용을 모아 ‘우리가 생각하는 글로벌 에티켓’을 정한다.

준비물

-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글로벌 에티켓 관련 사진
- 글로벌 에티켓 기록 카드

유의점

- 글로벌 에티켓을 지키면 행동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즐거워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관련 교육과정

4-1 3.

가

, 6-2 2.

가

가



1

(

?

)



2

.....

.....

왕비가 나누어준 티켓



1

13 가

14
가



2



3



4



5



6

필립 시드니 경의 아름다운 마음



1 가

가



2 1585 ,

,



3



4

가

가



5



6

가

3

!

목 표

- 동일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을 비교하고 그와 관련하여 글로벌 에티켓을 설명할 수 있다.
- ‘스마일링 코리언’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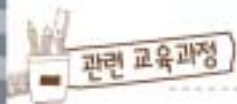
-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서로 다른 행동에 대한 자료를 보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 각자가 경험한 보기 좋았던 행동과 멋진 행동에 대하여 발표한다.
- 보기 좋은 행동과 멋진 행동의 근원은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음을 알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토론한다.
- ‘스마일링 코리언’을 실천하는 해외 봉사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 ‘스마일링 코리언’에 대한 표어나 광고 만화를 만든다.

준비물

- ‘스마일링 코리언’ 해외 봉사 활동 사례

유의점

- ‘주제 2’의 내용을 ‘어글리 코리언’과 ‘스마일링 코리언’ 사례로 활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누구나 ‘스마일링 코리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6, 9.

?



1



2



스마일링 코리언!

한국이 세워준 에티오피아 최우수 초등학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당시 참전국을 찾아가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도 우리가 현재 돕는 나라이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볼레를 지나 예카에 들어서면 인구 3만 명의 달동네 ‘코리아 사파르(한국촌)’가 있다. 60년 전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 ‘한국촌’이라는 이름이 붙은 판자촌이다.

이 마을에는 지난 2006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현대식 건물을 세우고 컴퓨터, 과학 실험 도구, 도서관 등을 잘 갖추어 개교한 히브레 피레 초등학교가 있다. ‘참전 용사촌 초등학교’로 불리는 이 학교는 KOICA 해외 봉사단이 공부도 잘 가르쳐 주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가 되었으며 전국의 교사들이 방문하여 견학하는 ‘최우수 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한때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했던 에티오피아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은 장차 에티오피아를 다시 크게 발전하는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다.



KOICA



다문화 가정 보듬이 '미소 천사'



설을 앞두고 육군하사와 베트남 이주 여성 간의 특별한 인연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주인공은 육군 ‘이기자’ 부대 공병 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 하사(28세)이다.

2009년 11월 어느 날, 평소 강 하사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지역 주민이 자신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20세)을 소개했다. 그는 강 하사에게 자신의 아내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강 하사는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낯선 한국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성을 찾아가서 한글과 생활 회화 등 우리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또 함께 시장을 보고 여가 시간을 즐기며 말동무가 되어 주는 등 먼 나라로 시집을 와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여성을 친동생처럼 대해 주었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아요.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친자매처럼 소중한 인연을 이어 나가고 싶어요.”

4

가 ,

목 표

- 한·중·일 세 나라 식사 문화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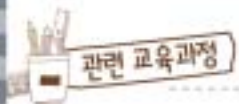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자료를 살펴본다.
- 세 나라 식생활 문화에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 이야기한다.
- 세 나라 각각의 젓가락을 사용해 보고 그 특징과 장점을 찾아 기록한다.
- 기록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다.
-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함께 다른 나라 문화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준비물

- 한·중·일 세 나라 사람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
- 한·중·일 세 나라 젓가락(한국 : 쇠젓가락, 중국 : 긴 나무젓가락, 일본 : 짧고 끝이 뾰족한 나무젓가락)

유의점

- 한·중·일 세 나라 식생활 문화 중 젓가락 문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5 4. , 6-2 2. 가

• • 가 , ?

1



비슷한 점

다른 점

2

	가		
			
			
			

재미있는 젓가락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손재주가 젓가락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젓가락으로 김을 한 장씩 집어 밥을 싸고, 김치를 찢어 먹고, 달라붙은 갯잎을 한 장씩 떼어내고, 말랑말랑한 메밀묵이나 두부를 집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한다.

어떤 학교에서는 재능 대회 종목에 젓가락으로 콩 줍기 내기를 넣기도 한다.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 젓가락 사용을 가르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잘 사용하면 손재주가 더 좋아지고 지능도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재주가 좋으면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과학 기술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젓가락 문화’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오랜 옛날부터 함께 해 왔으나, 이 문화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다. 그 사람들은 젓가락의 재질과 모양, 사용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세 나라 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젓가락 문화가 가장 앞선다고 여긴다.

중국과 일본의 젓가락이 나무로 된 것인데 비해 우리 젓가락은 놋쇠나 스테인리스스틸 등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중국 젓가락은 우리 젓가락에 비해 길고, 일본 젓가락은 우리 젓가락에 비해 짧고 끝이 뾰족하다. 또 우리는 밥과 국을 떠먹을 때는 주로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밥도 젓가락으로 먹는다. 우리는 젓가락으로 주로 나물 반찬을 집어 먹지만 중국인들은 옛날부터 둥글고 큰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한가운데 놓고 덜어서 먹었기 때문에 긴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생선을 많이 먹어 생선 가시를 발라내는 데 편리한 짧고 뾰족한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젓가락에 얹힌 이야기는 이외에도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젓가락 문화에 얹힌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것과 관련하여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젓가락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우리의 식사 예절

옛날에는 가정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부를 만큼 식사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절 교육이 매우 엄격했다. 식사 예절이 가정교육의 기본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어른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렀다. <다음>에 제시된 우리의 식사 예절을 살펴보자.

- ★ 밥상 앞에서는 단정한 자세로 앉는다.
- ★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 ★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며 품위 있게 식사한다. 또 식사를 마쳤더라도 어른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 ★ 양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 ★ 상을 두들기거나 수저가 그릇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 ★ 반찬 그릇은 제자리에 두고 수저를 이용해서 먹어야 한다.
- ★ 사례가 들면 자리를 피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식사 자리로 돌아간다.
- ★ 밥상 위에 팔꿈치를 고이거나 턱을 괴지 않는다.
- ★ 좋아하는 반찬을 독차지하거나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다.
- ★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수저를 처음 위치에 가지런히 놓는다.
- ★ 식사 후에는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한다.

어린이들이 틀리기 쉬운 식사 예절 세 가지



5

목 표

- 우리나라와 서양의 대화 예절에서 서로 다른 점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서양인과의 올바른 대화 예절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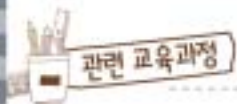
- 학교에서 만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 경험과 그때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거리에서 만난 외국인과의 대화 경험과 그때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주의를 기울였거나 조심스러워했던 점을 이야기한다.
- 우리와 서양의 대화 예절 간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본다.
- 글로벌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화 예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 여러 가지 상황(예 : 거리에서 길을 묻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을 정하고, 함께 이야기한 글로벌 대화 예절을 지키는 역할 놀이를 해 본다.

준비물

- 우리나라와 서양의 대화 예절에 관한 자료 (내용 및 삽화)

유의점

-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
- 상대방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어떤 사람과도 서로 다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 10.

, 6-2, 3.

가



1



다른 점

같은 점

2

3

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너무 빠르지 않게 또박또박 이야기한다.

.....

③ 다른 사람 앞에서 껌속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④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다.

.....

⑤ 혼자 아는 척하지 않는다.

.....

⑥ 남의 비밀 이야기나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

.....

⑦ 남의 말을 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

⑧ 상대의 이야기가 옳으면 긍정하는 표정을 짓는다.

.....

대화를 잘하려면?

처음부터 대화를 잘 하게 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일까?

1

가 가



2



3



4

가 가



5

가 ,



6



1



2

?



3

(small talking)

가



4

가



5

nice



1 가 How nice!,
How nice!



2 It's nice!



3 Excuse me 가



4 가



5



6



7



8



6

목 표

- 관광지나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에티켓을 잘 지키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지 이야기한다.
- 관광지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찾아 소책자를 만든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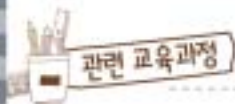
- 사람들의 에티켓 수준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본다.
 - 비행기
 - 호텔
 -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 공연장, 연주회장, 경기장
 - 백화점이나 시장
 - 거리
 - 그 밖의 공공장소(여러 가지 교통수단, 엘리베이터 등)
-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불쾌하거나 난처했던 경험 혹은 모두가 에티켓을 잘 지켜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모아 모듈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전시한다.

준비물

- 에티켓 소책자 제작 자료(도화지, 필기구, 풀, 가위 등)

유의점

- 각 나라마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훌륭한 전통을 살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노력을 개인 모두가 해야 함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4-1, 4.

,

4-1, 3.

가

가



1

.....

.....

.....

.....

.....

.....

.....



2

.....

.....

.....

.....

.....

.....

.....

?



장소에 따라 지켜야 할 에티켓



- ★ 일행이 함께 탈 때는 뒷사람이 마지막으로 타고 먼저 내린다.
- ★ 좌석 등반이를 눕히려면 반드시 뒷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앞좌석에 손을 얹어 잡아당기지 않아야 한다.
- ★ 승무원을 부를 때는 콜 버튼을 누르고, 큰소리로 부르지 않는다.
- ★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노크를 하지 않고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한다.



- ★ 인솔자가 객실을 배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 복도나 현관 등에서 맨발이나 잠옷, 슬리퍼 차림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 ★ 남들이 우리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큰 소리로 떠들면 불쾌감을 주므로 삼가도록 한다.
- ★ 외출하면서 청소를 부탁할 때는 'Clean up(Housekeeping) Please'라는 팻말을 손잡이에 걸어 놓아야 하며 적당한 액수(나라, 지역에 따라 다름)의 팁을 놓아둔다.
- ★ 객실에서 요리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 ★ 단체인 경우 줄을 서서 관람하고, 한 장소에서 오래 서 있어 뒷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한다.
- ★ 전시물이나 보호 유리에 손이나 얼굴 등을 대지 않는다.
- ★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 ★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 음료수나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 ★ 큰 소리로 아는 체하지 않는다. 해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예절이다.



- ★ 원칙적으로 정장을 입어야 한다.
- ★ 미리 자리에 앉아 공연을 감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 휴식 시간에도 2~3분 전에 자리로 돌아와 앉도록 한다. 늦은 경우 직원의 안내로 막이 바뀌거나 곡이 바뀔 때 조용히 입장해야 한다.
- ★ 관람이 시작되면 이야기를 삼가고, 꼭 필요한 말도 귓속말로 한다.
- ★ 공연 중에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다. 좋은 자리가 비었다고 움직이는 것은 공연자와 다른 관객에 대한 실례가 된다.
- ★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좋다.



- ★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에서는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 준다.
- ★ 직원이 인사를 하면 눈인사를 해 준다.
- ★ 상품을 볼 때는 건방지게 굴지 않는다.
- ★ 사지 않을 때에는 “미안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 ★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걸을 때는 남성이 차도 쪽에서 걷는다.
- ★ ‘레이디 퍼스트’를 습관화한다.
- ★ 껌을 씹거나 침을 뱉지 않아야 한다.
- ★ 신체 접촉을 조심하고 부딪치면 즉시 사과해야 한다.
- ★ 남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도록 하고 눈인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받는다.

7

목 표

- 외국인을 초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외국인을 초대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을 익힌다.

활동 과정

- 초대한 외국인을 맞이하고 배웅할 때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생각하여 설명한다.
 -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하기
 - 서로 이름을 물어보거나 명함을 교환하기
 - 자리를 함께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 함께 이야기할 내용 정하기
 - 그 밖의 일 이야기하기
- 간단한 영어를 익혀서 사용해 본다.
- 외국인을 초대한 장면을 내용으로 한 역할 놀이를 한다.
-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질문이나 우리의 버릇 등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 외국인들이 즐거워하는 대화나 음식 등을 알아본다.

준비물

- 어린이용 명함(Name Card, 각자가 창의적으로 만들어 출력한다.)

유의점

- 외국인을 초대할 때에는 형식적인 에티켓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 외국인들은 우리의 전통과 관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관련 교육과정

5, 10.

가



1

).

(가



2

?

?

,

.



잘 오셨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루크 씨인가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을 알고 싶어요.

이름을 불러도 괜찮을까요?

비행기에서는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즐겁게 지내시기 바랄게요.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국에는 얼마 동안 계시게 됩니까?

가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들이에요.

이분은 아버지, 이분은 어머니예요.

아버지(어머니)는 회사원입니다.

웁고 싶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해요.

외국인을 맞이할 때의 기본 영어 표현

Welcome to Korea!

Excuse me, are you Mr. Luke?

How do you do? My name is ○○○.

I am glad to meet you.

May I have your name, please?

Can I call you by your first name?

How was your flight?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while you are in Korea.

I parked my car in the parking lot. Let's go.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in Korea?



가

Let me introduce my family to you.

I'd like you to meet my family.

This is my father, and this is my mother.

My father(Mother) works for ○○○○(회사 이름).

I've been dying to mee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I hope we'll become good friends.

외국인을 초대할 때 알아두면 좋은 에티켓

(1)

- ◆ 마주보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한다.
- ◆ 악수는 허리를 곧게 편 채로 손을 마주잡고 한다.
 - 신분이 높거나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또는 여성이 먼저 청해야 한다.
 - 상대방의 손을 너무 세게 혹은 약하게 잡는 것은 실례가 된다.
 - 악수를 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도 실례가 된다.



(2)

- ◆ 함께 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는 여성 혹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남성 혹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가 적은 루크가 우리 집에 왔다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 루크를 소개한 다음에 루크에게 부모님을 소개해 준다.
- ◆ 소개를 받았을 때에는 바른 자세로 일어서야 한다.



(3)

- ◆ 고향이나 졸업한 학교, 나이 등은 사생활(프라이버시)을 침해하는 질문이 되므로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 ◆ 상대방 국가의 관습, 역사적인 사건, 특색 등을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외국인이 좋아하는 화제의 예>

 - 그 나라와 우리나라 역사
 - 관습, 음식, 문화, 예술, 음악
 - 스포츠, 날씨, 여행, 뉴스 등 가벼운 이야기
- ◆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좋지 않으므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한다.



(4)

- ◆ 외국인들은 집으로 초대를 받아 직접 만든 우리 고유의 음식을 대접 받는 것을 좋아한다.
 - 초대할 때에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 ◆ 식사 예정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 초대받은 손님이 부부인 경우에는 초대된 측에서도 부부가 함께 손님을 맞이한다.
- ◆ 이런 경우 항상 ‘레이디 퍼스트’를 염두에 두고 여성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목 표

- 외국인을 방문할 때 준비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익힌다.

활동 과정

- 외국인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 초대한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준비할 것과 가지고 갈 만한 선물의 종류를 이야기한다.
 - 옷차림 - 선물 - 그 밖의 준비물
- 남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옳은 점과 그른 점, 잘한 점을 찾아 토의한다.
- 우리의 초대와 방문 예절, 서양 사람들의 초대와 방문 예절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야기한다.
- 기본적인 에티켓을 중심으로 역할 놀이를 해 본다.

준비물

- 남의 집을 방문할 때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옳은 점과 그른 점, 잘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활동한 것을 촬영)

유의점

- 방문 모습이 담긴 동영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역할 놀이로 대체하고 관련 내용을 토론한다.
- 주제 7의 초대 예절과 관련지어 지도한다.



관련 교육과정

4-1, 4. , 6, 9.



1

가 가

. ① ~ ⑰

< >

(3)

- ① 복장은 출연자가 자유롭게 정한다.
- ② (수경이가 전화를 한다.) “선생님,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 ③ (현관에서 외투를 벗어든다. 다니엘라 선생님이 나온다.) “저희 왔어요.”
- ④ (다니엘라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한다.) “응, 그래. 잘 왔어요.”
- ⑤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수경이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
- ⑥ (수경이 친구는 얼른 소파에 앉는다.)
- ⑦ (다니엘라 선생님이 수경이를 보고 웃으며 말한다.) “수경이도 앉으렴.”
- ⑧ (수경이는 친구 옆에 앉고, 다니엘라 선생님은 맞은편에 앉는다.)
- ⑨ (수경이 친구가 수경이에게 귓속말로 속삭인다.) “애, 선물 드려야지.”
- ⑩ (수경이 선물 꾸러미를 한손으로 내밀며) “선생님, 선물이에요.”
- ⑪ (다니엘라 선생님) “뭔가 봐도 되겠니?”
- ⑫ (수경) “그렇게 하세요.” (혹은 “그럼요.”)
- ⑬ (다니엘라 선생님, 한복을 입힌 한 쌍의 인형을 보며) “예쁘구나! 고맙다, 수경아.”
- ⑭ (다니엘라 선생님, 인형을 얹어 놓고 음료수를 가져와 두 사람 앞에 놓는다.)
- ⑮ (수경이는 얼른 맛있게 마시고, 친구는 다니엘라 선생님을 살핀다.)
- ⑯ (다니엘라 선생님) “너도 마시렴.”
- *다니엘라 선생님, 수경이, 수경이 친구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 ⑰ (수경, 할일이 끝났다는 듯 벽시계를 보며) “선생님, 저희 가도 돼요?”

2



외국인 가정을 방문할 때 아이들 만한 에티켓

- ★ 단정한 옷차림으로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미리 도착하여 화장실에서 복장을 점검한다.



- ★ 방문 당일에 확인 전화를 하고 방문해야 한다.
- ★ 우리나라에서는 가까운 사이이면 사전 약속도 없이 그냥 한번 들렀다는 식으로 불쑥 찾아가기도 하지만, 서양 사람들끼리는 사전 약속이 없이 방문하는 것은 실례이다.

- ★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미리 방문 시각을 정해야 한다.
- ★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대체로 점심 식사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식사 시간을 피하여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 ★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금 늦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바로 연락하여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한다.

- ★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미리 외투를 벗지만, 서양에서는 보통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벗는다.
- ★ 여성의 경우에는 외투를 입고 들어가도 괜찮다. 잠깐 방문한 경우에도 외투를 벗지 않는 것이 좋다.



- ★ 실내에 들어서면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 ★ 주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다. 주인이 앉기를 권할 때까지 서 있는 것이 예의이다.

- ★ 우리는 선물을 일어날 때 슬그머니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서 인사를 한 후 곧 내놓는다.
- ★ 선물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간단한 것이 좋다.
- ★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인사
 - “This is a Korean doll. I hope you like it.”(손님)
 - “May I open it?”(주인)
 - “Yes, of course.”(손님)
 - “Oh, it's beautiful. I like it very much. Thank you so much.”(주인)



- ★ 차나 음료수를 내어 오면 감사 표시를 하고 권하면 마신다.
- ★ 함께 간 사람이 있을 경우 상대방 앞에서 우리말로 대화하거나 껌속말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우리말로 이야기해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 ★ 방문한 사람이나 주인이나 시계를 보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시계를 보면 지루하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다.
- ★ 처음 방문한 경우에는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한다.
- ★ 헤어지는 인사는 짧게 한다. 헤어질 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9

목 표

- 에티켓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다.
- 나라마다 다른 에티켓의 사례들이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유의점을 알아보고, 그 에티켓이나 유의점에는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활동 과정

- ‘이탈리아에서 시집 온 귀여운 새댁’을 읽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토의한다.
- 다른 사람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신이 난처했던 경험과 그 이유를 설명해 본다.
- 나라에 따라 특징적인 공공장소 에티켓에 대한 ○, × 퀴즈를 한다.
 - 도움 자료를 읽은 후 개인별로 문제를 해결한 후 답을 맞추어 보거나 교사가 문제를 불러주면 개인별 화이트보드에 ○, ×로 표시해 본다.
-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키자는 주제로 공익 광고를 만든다.

준비물

- 화이트보드(개인별, 소형)
- 도움 자료(이 주제의 도움 자료를 복사하여 배부)
- 도화지와 색연필 등 그리기 자료

유의점

- 여러 나라의 공공장소 에티켓을 분석하여 에티켓이란 상대방이나 여러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관련 교육과정

4-1, 4. , 6, 9.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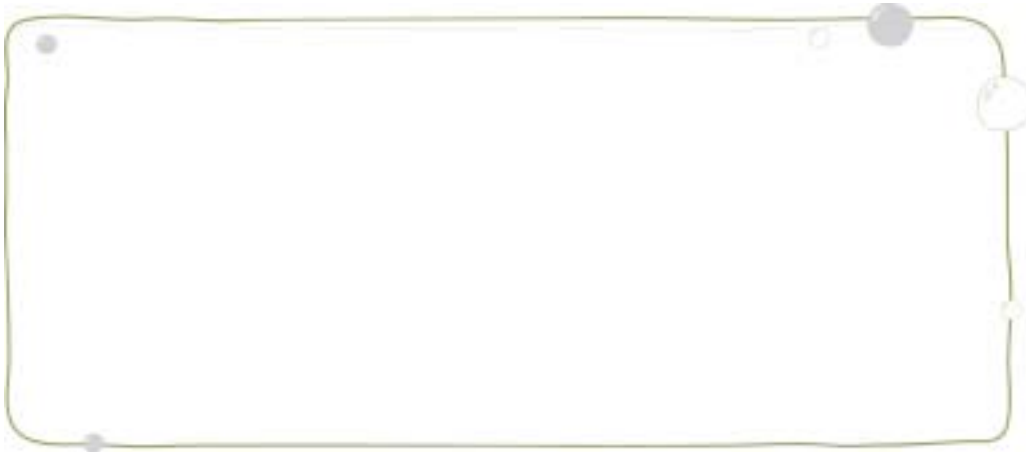
- ① 독일에서는 거리에서 껌을 씹어도 좋다. ()
- ②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낸다. ()
- ③ 스페인에서는 차를 탈 때 남성이 여성을 태운 다음에 타야 한다. ()
- ④ 러시아에서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 ()
- ⑤ 폴란드에서는 길을 걷다가 어깨를 부딪쳐도 그냥 지나가야 한다. ()
- ⑥ 인도네시아에서는 남성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지 않는다. ()
- ⑦ 타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말다툼하기를 즐긴다. ()
- ⑧ 싱가포르에서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
- ⑨ 미국에서는 영화관, 식당 앞에서 줄을 설 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 ⑩ 나이지리아 원주민들은 사진을 찍으면 혼이 빠진다고 여긴다. ()



46

.)

2



이탈리아에서 시집 온 '귀여운 새댁'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이탈리아 여성도 있습니다.

톡톡 튀는 음성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잘 이야기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귀여운 새댁'이라는 이미지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친숙한 느낌 때문에 그녀를 보면 모두들 "오, 이탈리아에서 온 귀여운 새댁!" 하고 부를 것 같습니다.

늘 웃는 얼굴, 맑고 큰 목소리, 재미있고 솔직한 대화 내용, 한국인 남편과의 꾸밈없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모습 등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새댁'은 시어머니에게 높임말을 잘못 사용했고, 혼자서 식사를 했는데도 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나라마다 달라요



- ★ 공항이나 보안이 엄격한 건물에서는 사진 촬영이 철저히 금지된다.
- ★ 원주민들은 사진을 찍으면 혼이 빠져 나간다고 여긴다.



- ★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 ★ 화장실은 흔히 남성용은 2층, 여성용은 지하에 있다.



- ★ 공공질서를 매우 잘 지키는 편이다. 특히 공항에서는 밀수 및 마약 단속이 엄해서 남의 짐을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관공서에서도 미리 신고하고 찍어야 한다.
- ★ 음주 운전과 과속 운전에 대한 법규가 엄격하다.



- ★ 줄서기를 특히 잘하는 나라이다. 줄을 설 때는 앞사람과의 사이를 일정한 거리로 유지하여 불편하지 않게 해 준다
- ★ 출입문에서는 습관적으로 뒤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하여 문을 잡아주고, 뒷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 ★ 거리에서 껌을 씹지 않아야 한다.
- ★ 대화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는다.



- ★ 공공장소에서는 어디서나 줄서기를 잘해야 한다.
- ★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빈자리가 있어도 함부로 앉지 말고 노약자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 ★ 박물관에서 사진을 촬영하려면 요금을 내야 한다.
- ★ 야외 시장 같은 곳을 촬영할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거나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주말에는 영화관이나 식당 등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두세 겹으로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다.



- ★ 대중전화로 오래 통화하기도 하므로 뒤에 서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 ★ 공공장소에는 번호표가 있고, 꼭 한 줄 서기를 해야 한다.
- ★ 공공 기관을 방문할 때 신발을 구겨 신거나 운동복,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 모든 경우에 여성이 먼저 하도록 양보해야 한다.



가

- ★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장실을 쓰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쓰레기는 천 달러 이상의 벌금).
-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차내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으며,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할 수 없다.



- ★ 줄서기가 생활화되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오른 쪽으로 서야 하며, 급할 때는 왼쪽으로 지나간다.



-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욕설, 침 뱉기, 방뇨, 쓰레기 버리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 ☆ 도시에서는 11시 이후에는 소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 ☆ 여성은 남성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남성이 여성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뺨히 쳐다보면 안 된다.
- ☆ 남성도 노출이 심하거나 요란한 옷을 입지 않는다.



- ☆ 불상 앞에서 사진 촬영을 자제해야 한다. 불교 사원은 대체로 반바지나 짧은 치마를 입고 출입할 수 없다.
- ☆ 공공장소에서 말다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며, 남녀간의 애정 표현도 삼가야 한다.



-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
- ☆ 거리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찍으려면 양해를 구해야 한다.



- ☆ 길을 걷다가 어깨가 부딪치거나 발을 밟았을 때에도 공손하게 사과하지 않는 편이다.



- ☆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이고 드문드문 있다. 카페 화장실은 지하 구석에 있어서 찾기가 힘들다.
- ☆ 관광지의 원통 화장실은 15분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0

목 표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예절 생활을 비교하여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예절 생활을 모두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활동 과정

- 다른 친구가 내게 손가락질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떠했는지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남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 알아보기
- 여러 나라의 각각 다른 예절에 대해 특징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흥미로운 점 찾아보기
 -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이야기하기
- 나라마다 다른 예절을 알아보고, 그 예절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른들이나 외국인 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한다.

유의점

-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예절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해 준다.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가 모두 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준다.

관련 교육과정

4-1, 4. , 6, 9.



1

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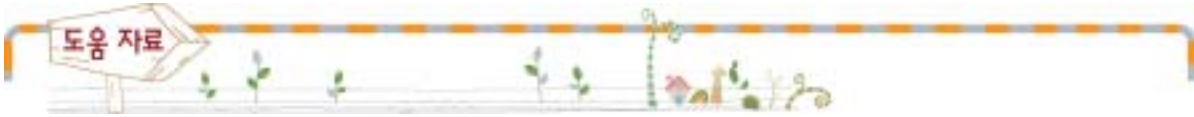
- ① 49쪽 도움 자료에서 신문 기사로 나타낼 부분 선택하기
- ② 선택한 내용을 실제로 있었던 일로 가상해 보기
- ③ 중심 내용을 찾아 신문 기사의 제목 정하기
- ④ 육하원칙에 따라 신문 기사 작성하기

2

가

< >

- ① 50쪽 도움 자료에서 역할극을 할 내용 선택하기
- ② 역할극을 할 때 할 말을 메모해 보기
- ③ 배역을 정해 역할극 연출하기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외국인이 오해하기 쉬운 한국인의 습관

★ ○○이는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
	.	.
	.	.
	.	.

한국인이 오해하기 쉬운 외국인의 습관

★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선물에 대한 서로 다른 인사말



11

목 표

- 세계 주요 종교의 특징과 분포 지역을 알 수 있다.
- 나라마다 믿는 종교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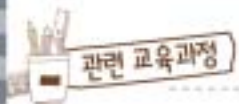
- 학생들에게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한 다음, ‘종교’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게 한다.
- 세계 지도를 보면서 각 나라마다 주된 종교가 무엇인지 말해 본다.
- 다양한 종교 중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주로 믿는 세계 4대 종교를 살펴 본다.
- 각 종교마다 특징이 다르며, 그 특징을 서로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

준비물

- 종교 생활 모습 사진
- 세계 지도(백지도), 지구본

유의점

- 특정 종교를 비하하지 않도록 한다.
- 세계 각 나라의 이름이나 정확한 위치를 모를 수 있으므로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통하여 충분히 설명한 다음, 백지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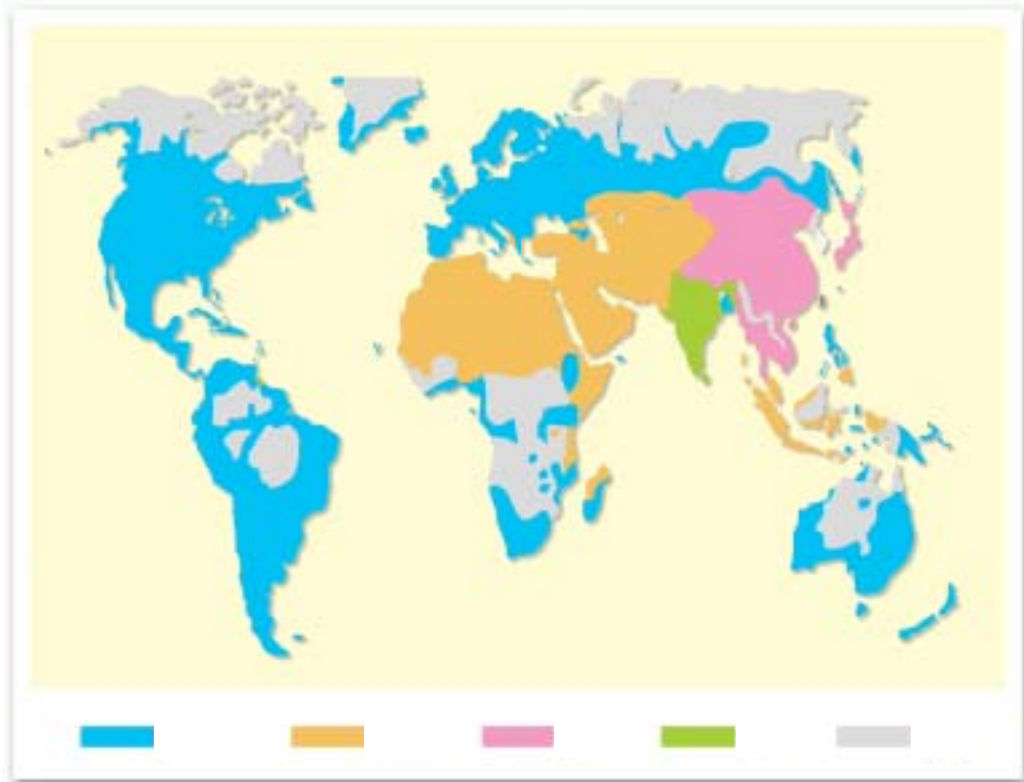
4-1 3. 가 , 6-10.



1



2



< >

- ①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한 종교는 어느 종교입니까? ()
- ② 중국 사람들이 가장 널리 믿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 ③ 인도의 석가모니에 의해 시작된 종교로 지혜와 자비심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착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한 종교는 어느 대륙에 주로 분포합니까? ()
- ④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로 사랑의 실천과 평등을 중시한 종교는 주로 어느 대륙에 분포합니까? ()
- ⑤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되고 신 앞의 모든 사람은 평등함을 강조하고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으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 종교는 주로 어느 대륙에 분포합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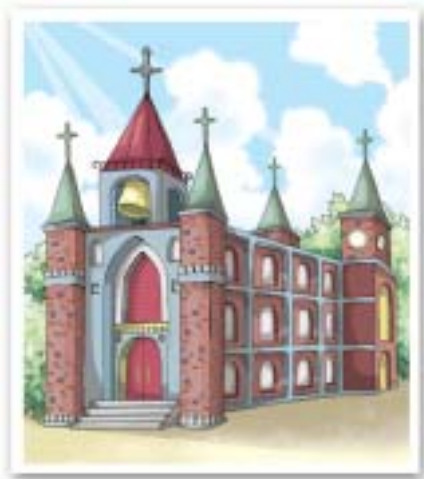
세계 종교의 특징

1.

- 1) : BC 6세기 말 ~ 4세기 초
- 2) : 동북 인도에서 창시된 종교
- 3) :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중국,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등
- 4)
 - 모든 일에 집착과 구애를 갖지 않는 실천을 강조한다.
 -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지혜의 종교, 자비의 종교, 평등의 종교, 평화의 종교이며, 석가모니가 설파한 주요한 말씀을 따르고 배우는 종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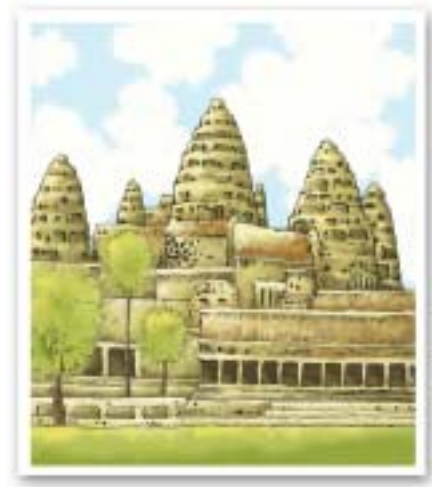
2.



- 1) : 약 2000년 전
- 2) :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땅
- 3) : 거의 유럽 전 지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메리카 대부분, 호주의 동남부 지역, 뉴질랜드, 한국, 시에라리온
- 4)
 - 폭넓은 사랑의 실천
 - 이타주의
 -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3.

- 1) : BC 2 ~ AD 3세기 무렵
- 2) : 인더스강 유역(인도)
- 3) : 인도, 네팔
- 4)
 - 330만의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이다.
 - 소를 숭배하고 육식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포 지역은 많지 않으나 8억 명이 믿는 세계의 대표 종교이다.



4.



- 1) : 서기 610년
- 2) :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지역
- 3) : 중국의 서북부 지역, 중동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아프리카 북부 지역(니제르,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알바니아
- 4)
 - 유일신인 알라를 믿는 종교로 경전은 코란이다.
 - 1년에 한 달(라마단 기간)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 동안은 금식을 한다.
 - 돼지를 불결하다고 생각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5.

1) :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히고, 이를 잘 지켜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특히,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충성을 중시하였으며, 예를 갖추는 생활을 강조하였다. 유교 도덕 사상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다섯 가지 도리가 삼강오륜이다.

- 삼강(三綱) :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 오륜(五倫) :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

2) : 천도교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에서 비롯된 종교이다. 당시 서학이라 불린 천주교에 대항하고, 외국의 침략과 사회적인 불안으로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학을 일으켰다. 동학은 ‘인내천’ 사상을 근본으로 하며, 후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3) : 대종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자 할 때에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민족 부흥의 밑바탕이 된다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나철이 일으킨 종교이다. 대종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을 기본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민족정신을 심어 주었다.

4) : 원불교는 일제 강점기에 박종빈이 처음 일으킨 종교이다. 원불교는 감사하고, 보은하는 생활과 근면하고, 저축하는 생활을 강조하는 등 우리 민족의 자립정신을 일깨워 주었다. 간척 사업을 통해 자립하는 생활과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방법을 강조했다.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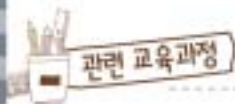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
-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른다.

활동 과정

-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사진을 보여 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해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다문화 가정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본다.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을 알아본다.
- 다문화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인 ‘샐러드 그릇(salad bowl)’ 관점과 ‘용광로(melting pot)’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관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 본다.

유의점

- 다문화 가정이 단순히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추세라는 점을 이해시킨다.



4-1 3.

가

, 6-2 2.

가



1 가



2

()

■

가

4 가

() 가정

3

가

가

가

.



.....

.....

.....

.....

.....

.....

.....

.....

.....

.....

다문화 교육의 이해

1. 가

다문화 가정 또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 장벽이 약화되어 각 국가의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이에 국제 결혼의 빈도 또한 증가하면서 탄생하였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2.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교육은 보편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인권의식, 갈등과 적대감을 폭력 없이 합리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는 평화 의식,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면서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등을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말한다. 다문화 교육이란 다양한 문화, 민족, 성,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하는 총체적인 노력이다. 다문화 교육 이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광로(melting pot) 정책으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수용하고 포용하려는 흐름이다. 즉, 용광로를 거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은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거기서 태어난 사람과 같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둘째, 상호 이해이다. 다양한 문화나 민족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간에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긴장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샐러드 그릇(salad bowl) 정책이다. 최근 들어 민족이나 인종을 이루는 각 집단은 그 나름의 가치관과 지식의 형성 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각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가 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회 역시 번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샐러드볼에는 각각의 야채가 그 자체로 접시에 담겨 있지만 같이 있어 야채 맛을 더욱 나게 하는 것과 같다.

13

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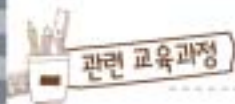
- 나라마다 다른 독특한 인사 예절을 배움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기본 인사 예절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과정

- 각 나라별로 독특한 인사 예절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보여 준다. 처음 접하는 학생은 각 나라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진 속 활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상해 보도록 한다.
-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인사 예절을 통해 나라별로 예절이 다양함을 이야기해 본다.
- 기타 다른 나라들의 인사법을 조사해 본다.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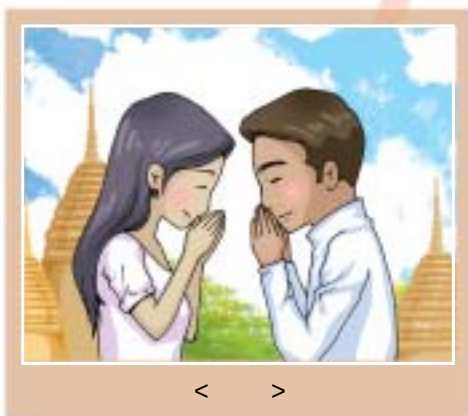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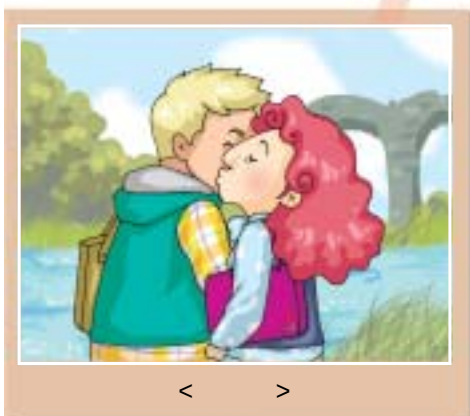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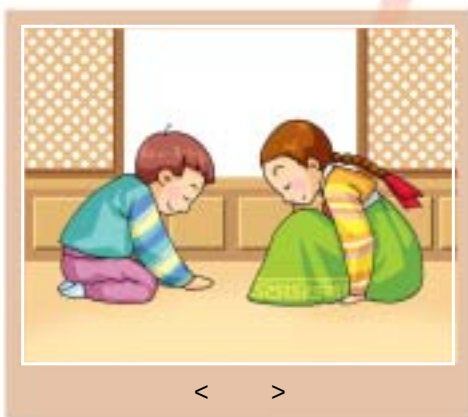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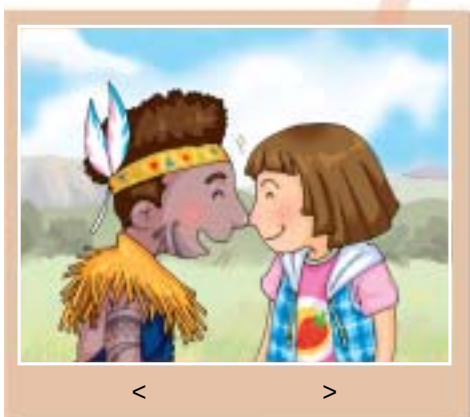
- 인사 예절 외에 다른 나라의 기본 예절의 특징을 동시에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6-2 2. 가 , 5-10.



1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다른 나라의 인사 예절



14

목 표

- 김치, 온돌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고 이를 소중히 해야 하는 까닭을 말할 수 있다.
-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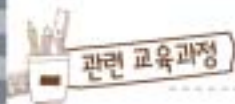
-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해 본다.
- 조상들의 열이 담긴 문화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 풍물놀이나 사물놀이를 보았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김치와 온돌의 특징을 살펴보고, 김치와 온돌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우수성을 찾아본다.
- 우리 문화유산을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

준비물

- 풍물놀이나 사물놀이 동영상, 온돌 VOD 및 동영상

유의점

-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재의 종류와 그것에 깃들여 있는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 전통문화를 소중히 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5-10.

,

6-2 2.

가



1

6가



2

?

.....

.....

.....

.....

.....

.....

.....



3

4

가

.....

.....

.....

.....

.....

.....

.....

.....

아름다운 우리 문화! 온돌

온돌이란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난방 장치로, 북부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 내기 위해 만들어 사용된 이래로 우리나라 전체에 널리 퍼졌다.

온돌의 원리는 아궁이에서 뿜감을 때면 뜨거운 공기가 구들장 밑을 지나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아궁이에서 생기는 연기는 굴뚝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다. 반면, 오늘날 난방으로 주로 활용되는 보일러는 구리로 만든 관을 깔 후,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서 방바닥을 만들어 이 관으로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지나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온돌은 방고래를 만들고 그 위에 구들장을 놓기 위한 흙 또는 돌로 쌓아올린 두덩을 만든다. 그 위에 두께 5~8cm의 판판한 화강암을 돌로 받쳐가며 일정한 높이로 놓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고 아궁이에 불을 때서 그때까지 만든 부분을 건조한다. 그 후 새 벽을 바른 다음 초배를 하고 다시 건조한 후 장판지를 바른 것이다. 아궁이에서 굴뚝에 이르는 방고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연기가 방고래 전체에 골고루 지나가도록 하고, 바닥은 아궁이에서 굴뚝으로 갈수록 약간 높게 만든다.

오늘날은 개량식 온돌로서 보일러를 설치하고 방바닥에 파이프를 매설하여 난방하거나, 연탄 보일러로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하는 방식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온돌은 한국의 독특한 난방법으로 열의 효율이 좋고 연료나 시설이 경제적이며, 고장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빈번한 손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열 시간이 길고 온도 조절이 어렵다는 등 단점도 있다.

한번 축적된 열이 조금씩 활용되도록 한 것이 온돌의 핵심 원리이며 ‘불을 다루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수식어를 자랑하는 온돌은 우리 민족 최고의 신비스러운 발명품이다. 이러한 온돌의 우수성에 힘입어 온돌에 대한 관심은 중국과 일본,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 김치

김치는 무·배추 및 오이 등을 소금에 절여서 고추·마늘·파·생강·젓갈 등의 양념으로 버무린 음식이다. 젖산에 의해 숙성되어 저온에서 발효된 것으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이다. 제사 때는 침채라 하며, 궁중에서는 젓국지·짬지·싱건지 등으로 불렸다.

김치는 채소를 오래 저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저장 중 생긴 여러 가지 미생물로 몸에 좋은 유기산과 향이 만들어져 훌륭한 발효 식품이 된다. 김치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의 공급원이며, 젖산균에 의해 강장 작용을 하고 식욕을 증진해 주기도 한다. 2001년 7월 5일 식품 분야의 국제 표준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를 물리치고 국제 식품 규격으로 승인받았다.



15

목 표

- 우리나라의 '김밥'과 베트남의 '월남쌈'을 만들어 보고 서로 다른 음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활동 과정

- 모둠별로 '김밥'과 '월남쌈' 중 어떤 음식을 만들지 미리 정하고 준비물을 가져오게 한다.
- '김밥'과 '월남쌈'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한다.
- '김밥'과 '월남쌈'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서 각 나라마다 음식 문화가 다른 까닭을 이야기한다.
- '김밥'과 '월남쌈'을 만들어 먹고 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본다.
- 각 나라의 음식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

준비물

- 김밥 : 밥, 당근, 오이, 달걀, 김밥용 김, 시금치, 단무지, 소금, 식용유, 참기름, 김밥
- 월남쌈 : 라이스페이퍼, 쇠고기(샤브샤브용), 파인애플(슬라이스로 된 것), 숙주나물, 고수, 양상추, 깻잎, 당근, 오이, 버미셀리(쌀국수면), 명콩소스, 간장, 파인애플즙

유의점

- 모둠별로 '김밥'과 '월남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불과 칼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다치는 학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데 중점을 둔다.

관련 교육과정

5-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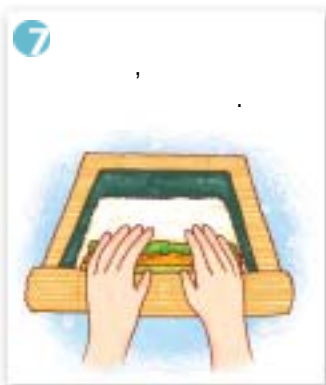
4-13.

가



1

밥, 당근, 오이, 달걀, 김밥용 김, 시금치, 단무지, 소금, 식용유, 참기름, 김밥



2

라이스페이퍼, 쇠고기(샤브샤브용), 파인애플(슬라이스로 된것), 숙주나물, 고수, 양상추, 깻잎, 당근, 오이, 버미셀리(쌀국수면), 땅콩소스, 간장, 파인애플즙



3

?

4

‘ , ‘ ,

비슷한 점

다른 점

5

가

6

나라별 대표 음식

1.

우리에게 잘 알려진 ‘토르티야’는 멕시코의 대표 음식으로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로 기름 없이 담백하게 구워 만든 둥글 납작한 빵이다. ‘토르티야’를 접고 안에 고기와 치즈, 야채를 넣어서 ‘타코’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긴 ‘토르티야’ 위에 치즈 등을 얹어서 ‘나초’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2.

학생들 사이의 인기 음식으로는 ‘쥬’로 우리나라의 팔빙수와 비슷하며, 주로 콩, 팥, 땅콩 등을 삶아 으깨어 만들며 자몽이나 바나나로 만든 것도 있다.



3.

프랑스는 바쁜 주중의 일상 식사는 우리보다 오히려 간단하다. 아침은 오렌지 주스(혹은 오렌지), 커피, 바게트를 먹고, 점심은 바깥에서 간단한 정식 혹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저녁에는 전채요리, 주식, 후식으로 진행된다.



4.

중국은 역사가 깊고 문명이 발달하고 각 지역마다 음식 습관이 많이 다른 편이다. 전통 음식으로는 북경은 ‘북경오리구이’, 상해는 ‘진주완자’와 ‘게 볶음’이, 서부에는 ‘마파요리’가, 광둥에는 ‘탕수육’과 ‘팔보채’ 등이 유명하다.



16

목 표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과 세계적인 노래 '요들송'을 비교하여 배움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노래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활동 과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유래와 종류를 알아본다.
- 요들송의 기원과 분포, 발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 두 곡의 가사를 읽고 느낌을 이야기한다.
-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과 '아리랑'을 들려준다.
- 두 음악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본다.
- 기타 다른 나라의 전통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준비물

- '아리랑' 및 '요들송' 악보

유의점

- '아리랑'과 '아름다운 베르네 산골'의 음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



관련 교육과정

6-2 2. 가 , 5-10.



1

경쾌하게

스위스 민요
김홍철 작사

아 름 다 운 베 르 네 맑은 시냇 물이 넘쳐
흐 르 네 새 새 빨 간 알 핀 로 제스
이 슬 먹 고 피 어 있 는 곳 다스 오 버 렌 야
청 초 하 게
오 버 렌 베르네산 골 아 름 답 구 나 다스
오 버 렌 야 오 버 렌 나 의 사 랑 베 르
네 - 후 디 리 이 요 - 후 디 리 리 - 후 디
리 이 요 - 후 디 리 리 - 후 디 리 이 요 - 후 디 리
리 - 후 디 리 이 요 - 후 디 리 리 -

2



세마치

우리나라 민요

아 - 리랑 - 아 - 리랑 - 아 라 - - 리 - 요 - - - -

아 - 리랑 - 고 - 개 - 로 - 녀 - 어 간 다 -

나 - 를 버 리 고 가 시 는 임 - 은 - - - -

십 - 리 도 - 못 - 가 - 서 - 발 - 병 난 다 -

3

.....

.....

.....

.....

.....

.....

아리랑과 요들송

1.

한국의 대표적 민요의 하나로 ‘아리랑’이라는 후렴이 들어 있는 구전 민요이며 가장 널리 애창되고 있다. 아리랑은 대체로 3음보와 세마치장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이 간결하다. 특정한 생활에서 기능을 가진 민요는 아니지만 국민 생활의 순간 순간의 비애와 애환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선 말기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에는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민족적 감정과 울분을 호소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근대 민요의 역할을 하였다.

1)

아리랑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고대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설과 대원군 시대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리랑은 고대에 성립되어 차츰 변형이 이루어져 대원군 시대에 들어와 경복궁 공사를 위한 가림 주구가 얹혀서 여러 가지 내용 및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리랑의 대표적 어휘인 ‘아리랑’에 대해서도 그 유래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아직까지 아리랑의 성립 시기나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정설은 없다. 이러한 설들은 아리랑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된 것이다. 그러나 ‘닐니리’, ‘청산별곡’의 후렴구처럼 아리랑도 관악기의 구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설이다.

2)

아리랑을 지방에 따라 구분하면 경기도 지방의 ‘경기아리랑’, 강원도 지방의 ‘강원 아리랑’, ‘정선 아리랑’, ‘춘천 아리랑’, 경상도 지방의 ‘밀양 아리랑’, 전라도 지방의 ‘진도 아리랑’ 등이 있다. ‘정선 아리랑’은 ‘아라리’라고 하던 것으로 정선과 영월·평창 일대에 분포되어 있으며 아리랑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아리랑은 민요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가요와 접목되면서 많은 창작 아리랑이 만들어졌다.



2.

1)

독어로는 'Jodel'과 'Jodle'로 표기되고, 영어로는 'Yodel' 또는 'Yodle'로 표기된다. 자연에 대한 경이감을 아름다운 음색으로 표현한 노래로 보통 음악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로운 독특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요들은 중세기 이전부터 알프스 지방의 목동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민중 노래로서 그 기원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

- ① 새나 짐승들의 소리를 흉내 냈다.
- ② 흠어진 양떼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용했다.
- ③ 신비로운 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종교적인 존경심에서 생겨났다.
- ④ 눈사태나 산사태가 많았던 시절이었기에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 ⑤ 마을과 마을 사이의 통신 수단 내지 구조 신호 등 다양한 신호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설은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견해이다. 높은 산에서 또는 위험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아랫마을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빨리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데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2)

요들은 지역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한다.

- 유럽의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알파인 스타일 요들
- 미국에서 발전한 웨스턴(Western) 스타일 요들
- 그 밖의 스타일 요들

3)

요들의 발성법은 기본적으로 두성과 육성(가슴을 울려서 내는 소리)으로 나뉘어 그것을 교차하여 연습한다. 육성의 음과 두성의 음이 서로 교차하면서 꺾일 때가 바로 요들이라는 것이다.

4)



5)

- <http://www.yodel.kr>
- http://www.yodle.co.kr/home_new/index.asp

17

목 표

-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세계 여러 나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활동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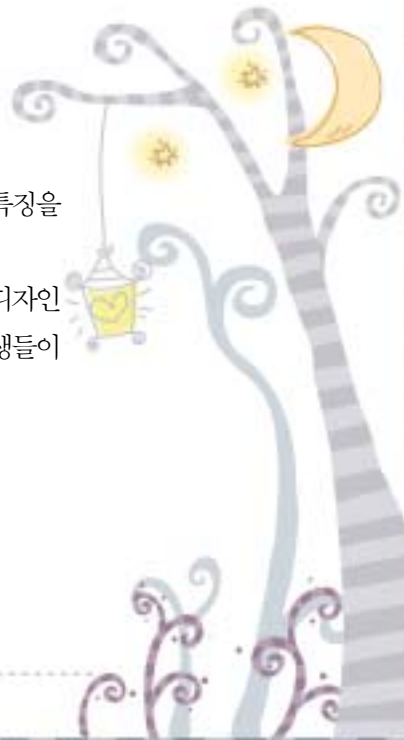
-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의 종류와 특징을 조사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을 감상한다.
- 자신이 알고 싶은 나라의 민속 의상을 조사한다.
- 자신이 정한 나라의 민속 의상을 직접 디자인해 본다.
- 민속 의상을 디자인해 보고 왜 그러한 의상을 디자인했는지 발표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본다.
- 다른 친구들이 디자인한 의상을 감상해 보고, 좋은 점을 칭찬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준비물

- 색연필, 크레파스 등

유의점

-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을 감상하면서 그 특징을 충분히 느끼도록 한다.
- 산업이 발달할수록 물건의 품질뿐 아니라 디자인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관련 교육과정

6-2 2. 가 , 5-10.



1



2



세계 여러 나라 민속 의상



18

가

목 표

- 지구촌의 의미를 알아보고, 미래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 각자가 꿈꾸는 미래의 글로벌 세계를 그려 보고 서로의 잘된 점을 말할 수 있다.

활동 과정

- ‘지구촌’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브레인스토밍한다.
- 지구촌, 세계화와 관련한 그림이나 사진, 신문 기사 등을 미리 스크랩하여 학생들에게 보여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 각자가 꿈꾸는 글로벌 세계를 그림으로 그리기 전에, 상상 속의 모습을 발표하게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론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본다.
- 각자가 꿈꾸는 미래의 글로벌 세계를 상상해 보고 그 모습을 그려 본다.
-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준비물

- 색연필, 크레파스, 수채화 도구(물감, 물통, 붓 등)

유의점

- 세계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태도, 능력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교육과정

6-2 2. 가 , 5-10.

가



1



2

가

.

3



.....

.....

.....

.....

.....

.....

.....

.....

.....

.....

.....

.....

.....

.....

.....

.....

.....

.....



세계화의 의미와 장·단점

1.

세계화는 국제 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가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민족 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 사회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됨을 뜻한다. 세계화란 우리나라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더욱 발전된다.

2.

세계화는 국가 간, 지역 간, 기업 간, 계층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며, 경쟁, 특허 등을 통해 자본, 노동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세계화는 세계 시장의 단일화와 시장 광역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 이익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무역 장벽을 없애고 자유 무역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세계화는 자본 수출, 경쟁력의 우위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대한 일부 선진국의 패권적 지배를 강화하며 세계화에 매몰된 일부 국가의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또 세계화는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의 국제 거래를 통해 각 경제 주체의 대외 의존도를 심화하며, 소득의 양극화를 확대하기도 한다.

4.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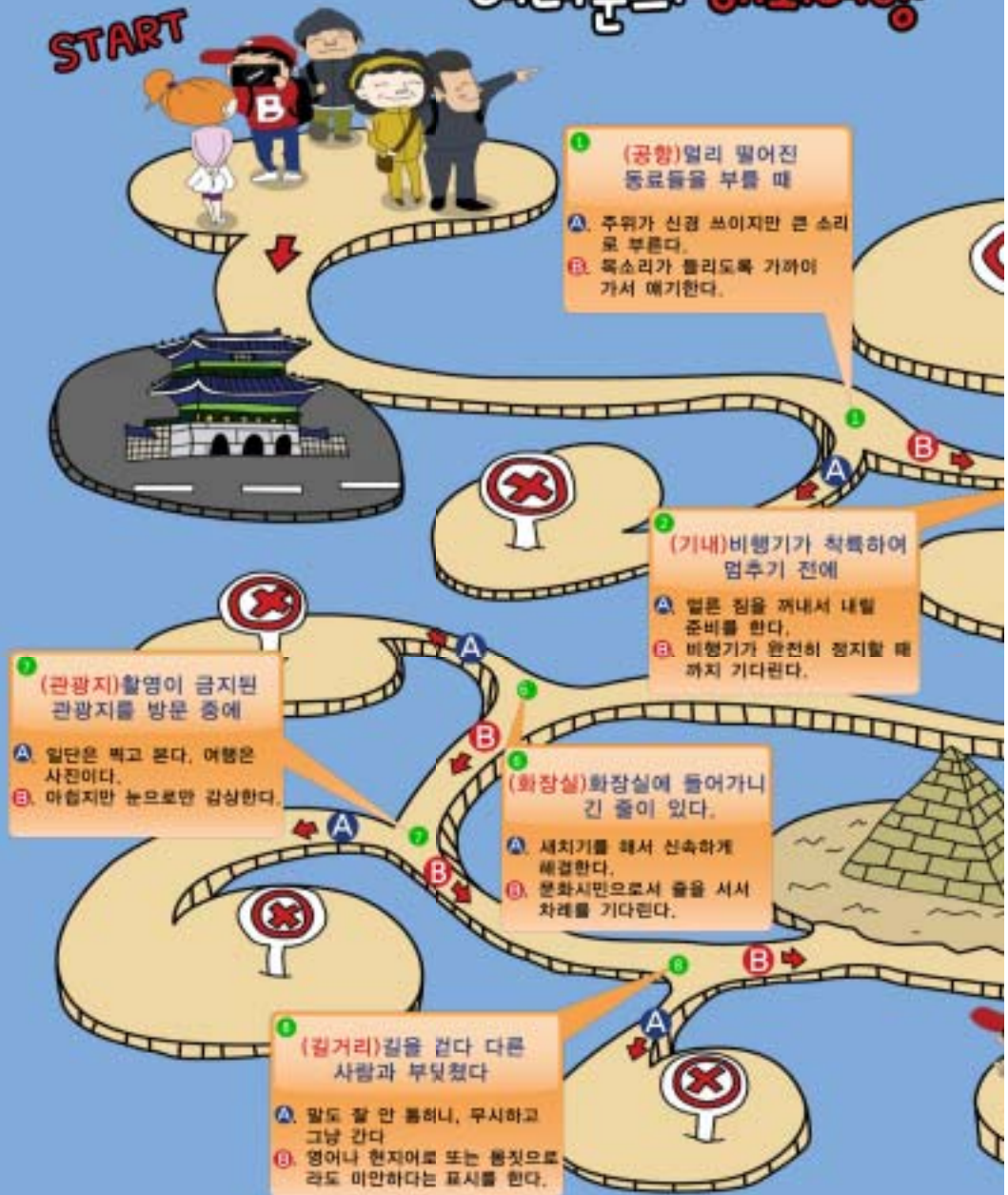
첫째, 의식주 모든 면에서 생활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했다.

둘째,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시차가 없어지고 있다. 외국에서 발생한 일이 실시간각으로 우리나라에 알려지고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분의 해외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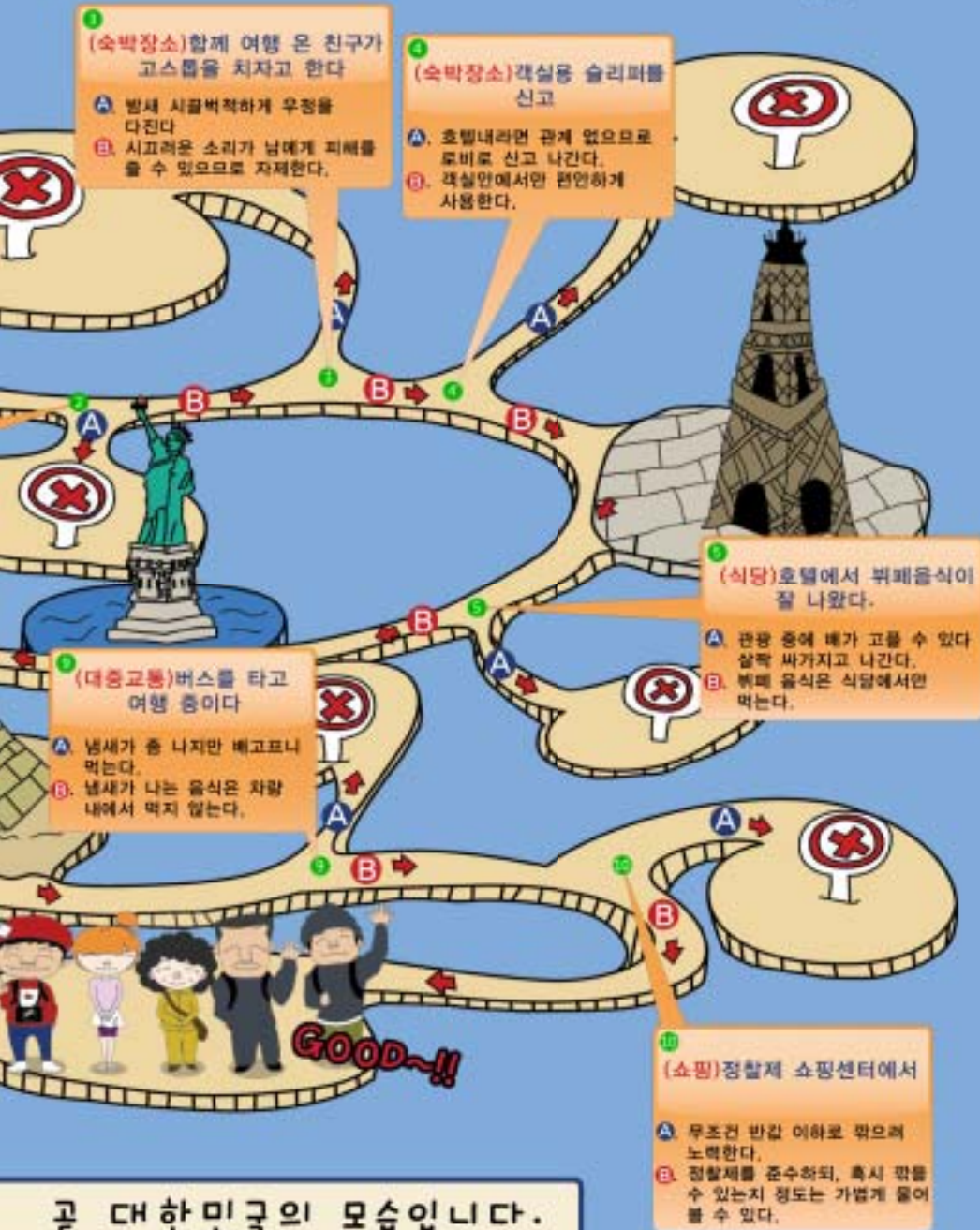
START



한국관광공사

해외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최고의 매너를 보유한 자량

에티켓을 체크해 보세요



곧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스러운 한국인이 되어주세요.

www.visitkorea.or.kr

G20

(2010. 11. 11. ~ 2010. 11. 12.)

G20 정상 회의란?

G20 정상 회의는 선진 경제국과 신흥 경제국을 포함한 20개 국가들이 모인 국제 경제 협력 논의 체제입니다. 선진 경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정상 회의만으로는 당면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8년 11월에 기존 G7에 신흥 경제 12개국(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과 유럽 연합이 함께 참여하는 G20 정상 회의가 탄생했습니다.

서울 G20 정상 회의 유치 의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그 규모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G20 정상 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서울 G20 정상 회의는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더욱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 G20 정상 회의 개최 효과는?

우리가 생산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직도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 G20 정상 회의를 계기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범세계적인 금융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 G20 정상 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회의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2010 11 , G20 가 .

가 ,

G20

.

가 가

.

■



“

”

1988

가

“

가

”

2002

가



“

G20

”

2010

G20

가

가

가

G20 정상회의란?

G7				
2008	11	G20	가	.
G20	7	(G7)	12	,
20	가			.

7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12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EU)

G6
1975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
(1975 11 15~17 ,)

G8
1997

G7+러시아
,
G7

G7
1976

G6+캐나다
7 ,

G20
1999

G20
2008

G7+신흥경제 12개국+EU
20

2008

Global Korea, Great Korea!

2008 , G7 가 G20 가
 G7 가 G20
 가 . G20
 ,
 .

‘코리아’하는 순간 전 세계가 ‘최고’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 ‘ ’가
 30% . G20 가 가 가
 , 가 .

코리아 프리미엄 **1%** > 자동차 25만대 수출 

2008 (4220) , 1%
 42 (4 8000) 가가 가 .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당당해집니다.

G20 가
 가 , 가
 .

- “국제화시대의 생활에티켓 365”, 원윙희, 백산출판사, 2010.
- “글로벌 생활에티켓”, 전라북도교육청, 2010.
- “글로벌 생활에티켓”, 전북교육 중등 2010-025, 전라북도교육청, 2010.
- “글로벌 세대를 위한 예절”, 김덕균·김성기·박호남·윤여빈·정규훈,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도서, 고등학교용, 미래엔컬처그룹, 2004.
- “글로벌 에티켓 & 글로벌 매너”, 이형철, 에디터, 1999.
- “글로벌 에티켓”, 정원기 외, 기문사, 2004.
-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 조영대, 백산출판사, 2010.
- “다문화 가정 보듬이 ‘미소천사’ 여군 부서관 화제”, 뉴시스통신, 2010. 2. 11.
- “문화적 혼혈인간”, 박희권, TB, 2010.
- “사무라이”, 니토베 이나조 지음, 양경미·권만규 옮김, 생각의나무, 2004.
- “성적 억압인가, 문화적 상대주의인가”, 조선일보, 2010.7.10., 이한수 기자의 『이슬람과 페미니즘』 책 소개.
- “여러분의 해외여행 에티켓을 체크해 보세요”, 한국관광공사. 2009.
- “오색동이의 한국문화 배움터!”,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장학자료 2009-23.
- “즐거운 산노래”, 김홍철, 세광음악출판사, 1988.
- “한눈에 알아보는 국제예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7.
- “BI 세상사람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2010년 7월호.
- 한국국제협력단(KOICA) (<http://www.koica.go.kr>)
- 세계 각국의 인사법(<http://blog.naver.com/utimegps?Redirect=Log&logNo=70006245644>)

메모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
오석환(팀장)
정양순(교육연구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홍필(사무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국민참여팀
한현숙(팀장)
권지연(대리)

박희권(외교통상부)
김인석(동덕여자대학교)
이현우(인하대학교)
유병수(경상북도교육청)
김수미(부산국제고등학교)

*홍미화(춘천교육대학교)
한춘희(부산교육대학교)
전종명(인천국제고등학교)
이천우(서울청원중학교)
김중희(경기동인초등학교)

* 표시는 연구·집필 책임자임

유하라(국립국어원)

2010년 10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한국방문의해위원회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종로구 서린동 70번지 알파타워 3층 (한국방문의해위원회)

02)2100-6222 (교육과학기술부) / 02)720-7341 (한국방문의해위원회)

02)2100-6133 (교육과학기술부) / 02)6272-7200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민혜경, 송미정, 이호은

(주)천재교육 Tel.02)3282-2851

본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mest.go.kr : 교과서 → 자료실)에 탑재되어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의 견해를 밝히 드립니다.